지난주 예배 출석 및 모임 통계
Statistics and Worship Attendance Last Week

구분				인원	소계	합계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s	1234부 Adults	스프링		85	840	977
		스트림		140		
		리버		176		
		오션		157		
		라이트하우스		108		
		향동캠퍼스		52		
		방문자등		122		
	교회학교 Sunday School	영유아부	101호	10	137	
		유치부	3층소예배실	18		
		유년부	5층 예배실	22		
		소년부	7층 예배실	30		
		청소년부	5층 예배실	43		
		향동교회학교	향동캠퍼스	15		
주일오후 Sunday Afternoon service		2층 대예배실			72	
수요예배 Wednesday night service		2층 대예배실			73	
토요기도회 Saturday night prayer		2층 대예배실			90	
실버스쿨 Silver school for the aged		5층 예배실 (화) 오전 9:30			한시적 연기	
직장인예배 Wednesday worker's service		6층 채플실 (수) 오전 12:00			매월 마지막주	

새벽예배 Early morning services	월	화	수	목	금	토	주간합계
	102	108	106	85	79	83	563

돕고있는 형제교회 및 선교사
Brother's Church and Missionaries Helping

국내선교 (4) Local Mission
- 상주교회 (주용은)
- 시내장로교회 (최정관)
- 예닮교회 (조원혁)
- 주안교회 (엄명섭)

해외선교 (3) Overseas Mission
- 대만 (김성문/조숙순)
- 키르키즈스탄 (정치훈)
- 태국 & 미얀마 (권동환/김연범)

기관선교 (2) Christian Institution Mission
- 총회북한선교
- 나사렛대학교

각교회 전도목표

구분	스프링	스트림	리버	오션	라이트하우스
전도목표	52	52	52	52	52
누계	5	20	6	1	2

지난 주 헌금현황

지난주 헌금 총액	36,740,000 원	지난주 지출 총액	37,016,955 원
헌금 총액 누계	1,386,512,974 원	지난주 지출 누계	1,386,444,620 원
지지난주 잔액	345,309 원	지난주 잔액	68,354 원

2026년도 등록 새가족 New Registered Members of Our Congregation in 2025

순번	이름	주소	선교회	인도자	등록일
19	이○아	남가좌동	406여선교회	스스로	5월 17일
20	조○애	상암동	406여선교회	스스로	5월 17일
21	염○석	송도동	569남선교회	김애순	5월 24일
22	손○지	송도동	558여선교회	김애순	5월 24일
23	원○호	원흥동	향동캠퍼스	스스로	5월 31일
24	양○훈	구로동	400남선교회	김슬옹	6월 21일
25	김○식	삼성동	향동캠퍼스	스스로	6월 21일
26	문○석	상암동	400남선교회	스스로	7월 12일
27	김○신	상암동	406여선교회	스스로	7월 12일
28	서○근	상암동	309남선교회	김다은	8월 2일
29	이○훈	상암동	400남선교회	스스로	8월 16일
30	김○정	상암동	406여선교회	스스로	8월 16일
31	안○혜	증산동	406여선교회	이은진	8월 23일
32	김○섭	증산동	400남선교회	이은진	8월 23일
33	김○림	응암동	Spring청년공동체	현태민	9월 6일
34	백○현	구산동	694남선교회	강신중	9월 13일
35	김○솔	상암동	Spring청년공동체	스스로	9월 13일
36	이○명	역촌동	Spring청년공동체	김다솔	9월 13일
37	이○연	수색동	558여선교회	스스로	9월 13일
38	이○명	공덕동	400남선교회	김미희	9월 13일
39	이○관	당산동	400남선교회	이향숙	9월 20일
40	김○경	당산동	309여선교회	이향숙	9월 20일

※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암동 뉴스 Announcements
"상암동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 이종필 목사 초청 '2026 가을 부흥성회'
- 일시 : 2026년 10월 14일(수)~17일(토)
  오전 5:30 & 저녁 7:30
- 주제 :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온다 (막 1:15)
- 강사 : 이종필 목사
  (세상의빛교회 담임, 킹덤처치연구소 소장)

2. 2026 가을 대심방
말씀과 기도가 깊어지는 가을, 성도님의 삶 속에 더 깊이 찾아갑니다.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이 깊이 뿌리내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기간 : 10월 1일((목)~31일(토)
- 대상 : 상암동교회 모든 성도

3. 2026 세계선교헌금 안내
세계선교헌금(World Evangelism Fund)은 전세계 나사렛교회 선교사역과 교회개척, 지역사역, 기독교 문서와 교육, 구호사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상암동교회는 년 1회 전교인이 참여합니다.
- 10월 18일(주일)
  - 선교보고 : 권동환 선교사(주일 2 · 3 · 4부 예배)
  - 상암동교회 등록교인 1인당 1만원 헌금
    (주일 모든 예배시간)

4. 선교회 모임 안내
- 선교회 회장단 – 오늘 12시, 5층 새가족실
- 선교회 월례회 – 다음주 주일 3부 예배 후,
  각 선교회별 지정된 장소

5. 전교인 체육대회
- 일시 : 2026년 10월 31일(토)
  오전 9:30~오후 3:00
- 장소 : 서울 성산초등학교 (마포구 양화로3길 94)
- 주제 :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하나 되는 상암동교회
- 참석대상 : 상암동교회 전교인
  (성도님들의 가족 포함)

6. 캐나다 은혜의 순례
- 일시 10월4일~13일 교회출발 오후3시40분

7. 장로 · 남권사 등산대회
- 10월17(토) 출발시간08:00 장소:북한산/둘레길

8. 담임목사 동정
- 10월 4일(주일)~13일(화) : 캐나다 은혜 순례
- 10월 15일(목) : 나사렛학원 법인사무국
- 10월 19일(월) : 전국목회자 세미나 개회예배 축도
- 10월 21일(수)~24일(토) : 나사렛 아시아태평양 RAC (싱가포르)

교회 청소봉사자 (각 선교회) **10월 10일** 여선교회(406) 여선교회(591) **10월 17일** 남선교회(515) 여선교회(514)

◈ 새가족 오리엔테이션 매주일 9:45~10:20 (5층 새가족양육실)

[2부 안내위원] (1층) 김태희 (2층) 이명숙 (본당) 박인선 김선순

[3부 안내위원] (1층) 김광동 조월심 (2층) 이성애 (본당) 소경선 안지원 이미화 (4층) 유미경 유희숙 조선화

주차안내 봉사 조정환 **교회차량운행** 남철희 송지훈 조정환 최두환 강효진

온라인 헌금계좌 은행(새마을금고) 예금주(상암동교회)

십일조헌금 0436–0900–0334–1 **일반헌금** 0436–0900–1381–1

주일 큰 비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s)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1부 묵상예배(오전7:30)
1st Service(Meditation)
인도 & 말씀 : 유덕선 목사

순서	내용
교회소식 Announcements	영상광고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인도자 Presider
신앙고백 Confess of Faith	♣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찬송 Hymn	♣ 찬송가25장 면류관 벗어서(1,2,3절)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요한복음 5:1-10
회중봉헌찬양 Offering Song	나를 통하여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설교자
말씀 Message	그 사람에게도 38년이 있습니다
찬송 Hymn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 (찬412장)
축도 Benediction	설교자
폐회송 Closing Hymn	반주자

2부 전통예배(오전9:00)
2nd Service (Traditional)
인도 : 유덕선 목사 말씀 : 신민규 담임목사

순서	내용
교회소식 Announcements	영상광고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인도자 Presider
찬송 Hymn	♣ 찬송가 25장 면류관벗어서(1,2,3절)
신앙고백 Confess of Faith	♣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
공동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장옥수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에스라 7:1-10
회중봉헌찬양 Offering Song	♣ 나를 통하여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설교자
찬양 Choir Song	사랑의 주 예수 (임마누엘 찬양대)
말씀 Message	바벨론을 떠나 말씀의 자리로
찬송 Hymn	나의 갈길 다가도록 (찬384장)
축도 Benediction	설교자
폐회송 Closing Hymn	반주자

3부 은혜예배(오전10:30)
3rd Service (Family)
인도 : 한희나, 김은성 목사 말씀 : 신민규 담임목사

순서	내용
찬양단	아바딤 찬양단
합심기도 Choir Song	다 같 이
공동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신승중 장로
찬양 Choir Song	평안 (할렐루야 찬양대)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에스라 7:1-10
말씀 Message	바벨론을 떠나 말씀의 자리로
합심기도 Choir Song	다 같 이
회중봉헌찬양 Offering Song	♣ 나를 통하여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설교자
축도 Benediction	설교자
파송의찬양 Celebration	아바딤 찬양단

♣ 표가 있는 순서는 몸이 불편하신 분 외에는 모두 좌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늦은 비 예배 (오후 2:30) Sunday afternoon worship
- 기도 이진경권사 (다음주: 장인숙 권사)
- 말씀 사무엘의 고별사(삼상 12:20-25)
- 설교자 신민규 담임목사

수요 단비 예배 (저녁 7:30) Wednesday night worship
- 성경 창세기1:1
- 말씀 관점의 변화
- 설교자 한희나 목사

예배 봉헌 담당 (Usher team)

구분	금주	다음주	봉헌위원
1부	교역자	교역자	교역자
2부	장옥수 장로	이재명 장로	송두성 안순자 유희숙 이가희 최금님
3부	신승중 장로	김하동 장로	강경자 김은해 신정화 신화옥 최양숙 이경희

다음주 예배 공동기도담당

구분	기도위원
1부	인도자
2부	소재경 집사(실행제직)
3부	김하동 장로

바벨론을 떠나 말씀의 자리로
생명의 말씀 신민규 목사 Message Dr. Shin Min-Gyoo
에스라 7:1-10

에스라는 제사장이며 율법학자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영적으로 개혁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제2차 포로 귀환 때 장정 약 1,700명과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이끌고 약 1,400km의 길을 4개월 동안 여행했습니다. 당시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은 지위와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만 생각한다면 위험하고 불편한 귀환길에 오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재의 안정보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도 인간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야 형통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에스라는 믿음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에스라는 풍요로운 페르시아를 떠나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큰 도시에서 작은 도시로 내려가는 길이었지만, 성경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은 믿음으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심은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이끌고 먼 길을 떠나려면 왕의 허락과 안전이 필요했습니다. 에스라는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포기한 것을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에스라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된 근본 원인은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을 단순히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깊이 연구하고 배워야 합니다. "예전에 다 배웠다"는 생각은 영적인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배워도 끝이 없으며,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바울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다 안다고 착각하면 잘못된 해석과 거짓을 진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말씀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셋째,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씀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할 뿐 아니라 직접 준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참된 순종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는 전심의 순종이며,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옷을 찢으며 회개했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노아도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두 준행했습니다. 순종은 편한 말씀만 골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에스라의 결심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연구하고, 자신이 준행한 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칠 수 없고, 자신이 행하지 않는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만 말씀을 잘 지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고, 깨달은 사람이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을 도우며, 교회 전체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복음을 받은 데서 멈추지 않고 선교사를 파송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가르치는 사람 자신도 더욱 깊이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는 주는 교회, 전하는 교회, 자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받은 것을 이웃과 나누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말씀과 믿음 안에서 계속 자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설교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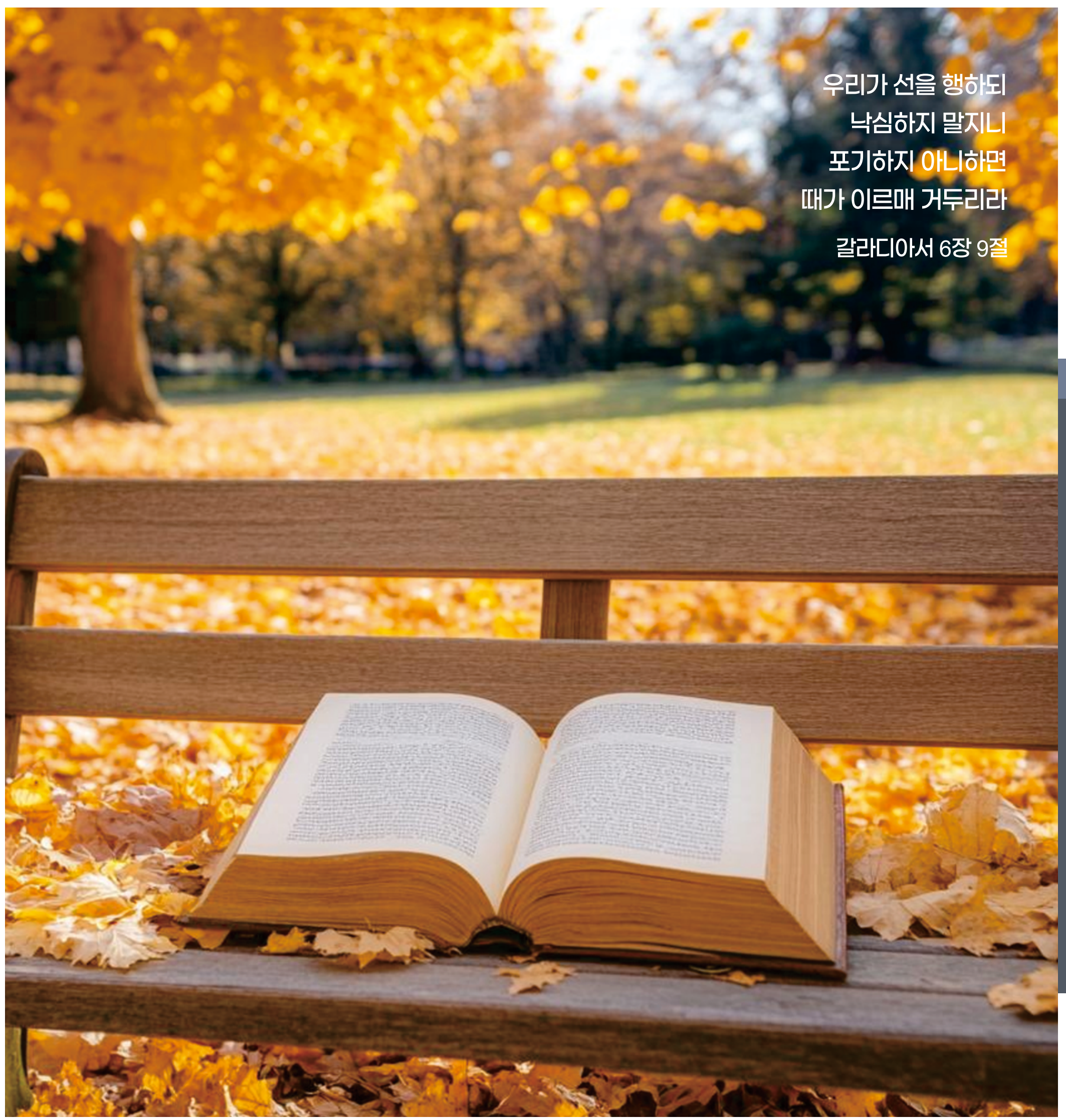
신민규 담임목사의 1분 컬럼 (Senior Pastor's 1 Minute Column)

두려움과 염려, 미움과 증오 같은 부정적인 마음은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고, 때로는 잘못된 마음의 습관이 되어 끊임없이 평화를 앗아갑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외적인 고난보다 내면에서 겪는 고난이 우리를 더 깊이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사명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관심을 둡니다. 반면 마음의 여유를 잃으면 쉽게 불평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삶에 충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비난과 평가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쉽게 잃는다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넓고 여유 있는 사람이 더 큰 일을 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 가운데는 물질적인 어려움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겪는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혹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 미움과 같은 부정적인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상한 내면이 치유되고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강림후 19주 ● 2026년 10월 4일 (제 73권 40호)

상암동교회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합 3:2)
거룩한 영성, 따뜻한 인격,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교회



사랑과 믿음, 그리고 희망의 공동체
The Community of Love, Faith, and Hope.

신민규 담임목사
(대한기독교 나사렛성결회 상암동교회)
Rev. Dr. **Min–Gyoo Shin**

상암동교회(구 성암교회)는 1955년 6월 8일 상암동 산기슭 (현재4단지)에서 창립이래 70여년동안 상암동주민과 동고동락하고 있는 교회로 마을 원주민들 거의가 한번쯤은 나와 본 영혼의 안식처 그리고 주민들에게 많은 추억이 있는 교회다. 지금은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의 장자교회로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영적 소임에 충실하고 있으며 '사랑과 믿음, 그리고 희망의 공동체'를 지향한다. 안산동산교회 원로목사 김인중 목사가 상암동교회 출신이다.

담임목사 신민규 목사는 나사렛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남부나사렛대학교(이학사, 문학석사), 미국 나사렛신학대학원(신학석사), 미국 캔사스주립대학교(이학석사, 교육학박사), 미국 에모리대학교(목회상담학박사)를 졸업했다. 미국유학 중 캔사스주에서 정션교회를 개척 담임했고 귀국 후 나사렛대학교에서 10년간 신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와 프린스턴신학대학원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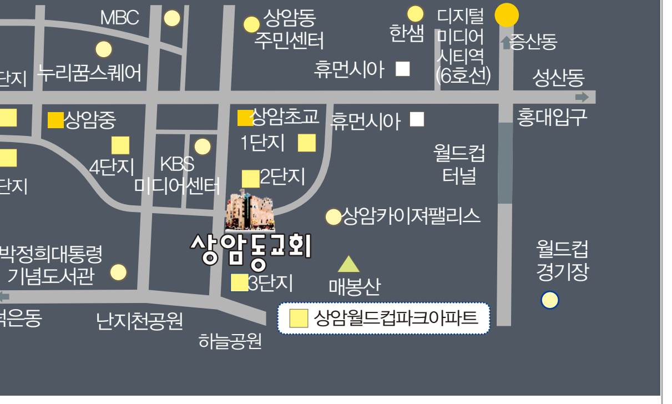
2000년 6월 10일 상암동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2012년 3월 부터 2016년 2월까지 제6대 나사렛대학교 총장을 역임했고, 2013년 6월부터 국제총회이사회 부의장으로 국제 나사렛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1년 2월까지 대만나사렛신학대학 총장으로 봉직했다. 2019년 3월 제64차 한국총회에서 선출되어 3년 임기의 총회감독과 2021년 한국성결교회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역임하였고, 2023년 12월부터 나사렛대학교 제16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상암동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Church Staffs (Associate Pastors, Missionaries, Lay Elders, and Lay Workers)
- 부목사 : 유덕선 권무일 권윤석 조요한 권수용 김용태 이광원 한희나 박충열 김은성
- 협동목사 : 김진국 류육렬 ■ 선교사 : 권동환 김연범 정치훈 ■ 교육전도사 : 이수진 신은혜 ■ 교육사 : 문은경
- 시무장로 : 김순진 민병석 최창수 도명락 권병수 장옥수 신승중 조용만 원유만 김하동 임재용 이재명
- 원로장로 : 장석춘 권태환 최인철 ■ 은퇴장로 : 박순영 이종태 박수영 차주섭 송연희 유준식
- 명예장로 : 강상대 김무일 박영애 양철호 윤성용 유중종 이두표 강영호 ■ 관리사 : 강신중
- 지휘 : (임마누엘) 최혜경 (할렐루야) 소경옥 ■ 방송·영상 : 김남식 윤지한 조범수 김기호 홍흥표 문정빈 (간사)조성민
- 반주 : (1부) 한희나 (2부) 이현주 (3부) 권은선, 김송희 (향동캠퍼스) 이진화 (새벽) 박은희 소재경 소경옥

예배시간 안내 Worship Services

예배		시간	장소
주일 1부 예배		주일오전 07:30	2층 본당
주일 2부 예배		주일오전 09:00	2층 본당
주일 3부 예배		주일오전 10:30	2층 본당
향동캠퍼스 주일예배	1부	주일오전 10:30	향동캠퍼스
	2부	주일오전 12:30	향동캠퍼스
주일오후예배		주일오후 02:30	2층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06:00	2층 본당
수요예배		수요오후 07:30	2층본당, 향동캠퍼스
토요찬양기도회		토요오후 07:30	2층 본당
청소년부		주일오후 12:00	5층 예배실
청년부		주일오후 12:00	2층 본당
유아부(0–4세)		주일오전 10:30	1층 101호
유치부(5–7세)		주일오전 10:30	3층 소예배실
유년부(1–3학년)		주일오전 10:30	5층 예배실
소년부(4–6학년)		주일오전 10:30	7층 예배실

교회오시는 길 Map & Directions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상암동교회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24 (상암동 1638) 사무실: (02) 309–1906 www.sangamdong.org
정선수양관 (신동읍 동강로 836) : 담당사역자 권무일 목사 **향동캠퍼스** (덕양구 꽃마을로 42, 9층) : 담당사역자 권윤석 목사

バビロンを離れ御言葉の座へ
エズラ 7:1-10

エズラは祭司長であり、律法学者で、バビロンからエルサレムへイスラエルの民を導き、霊的な改革を行った指導者でした。彼は第二次帰還のとき、成人男性約1,700名と、女性・子どもたちを率いて、約1,400kmの道のりを4か月かけて旅しました。当時のエズラは、ペルシャ帝国で高い地位と特権を持っていました。もし自分のことだけを考えるなら、危険で不便な帰還の旅に出る理由はありませんでした。しかし彼は、現在の安定よりも、イスラエル民族の回復と神様の御心を見つめました。聖書は、彼が「神様の恵み深い御手の助け」を受けたと語っています。私たちの人生と事役も、人間の力だけで成し遂げられるものではなく、神様の恵み深い御手が助けてくださるときにのみ、真の繁栄が与えられるのです。

第一に、エズラは信仰の地に戻ることを決心しました。彼は豊かなペルシャを離れ、廃墟となったエルサレムに帰ることを決心しました。人の目で見れば、大都市から小さな町へ下っていくように見えます。しかし聖書は、彼がエルサレムへ「上って来た」と記しています。神様が臨在され、神殿のある場所へ向かう道は、信仰によって上る道だからです。信仰の決心は祈りへとつなが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多くの人々を率いて遠い旅に出るには、王の許可と安全が必要でした。エズラは、王の心さえも神様の御手の中にあることを信じ、祈り求めたことでしょう。モーセもまた、ファラオの娘の子という地位を捨て、神様の民とともに苦しむ道を選びました。彼は、キリストのために受ける辱めを、エジプトの宝よりも大きな富だと考えました。神様は、信仰によって手放したものを、より良いもので報いてくださいます。目の前の利益ではなく、神様が与えてくださる報いを見つめる人こそ、信仰の決断を下すことができるのです。

第二にエズラは主の律法を研究することを決心しました。エズラは当時最高の律法学者でしたが、なおも神様の言葉をさらに深く研究することを決心しました。イスラエルの民が捕囚となった根本的な理由は、軍事力が弱かったからではなく、神様の御言葉が分からず、不従順であったからです。御言葉が分からなければ従うことはできず、従わなければ神様の御心から遠ざかってしまいます。だからこそ、信徒は聖書をただ読むだけで終わらせず、深く学び、研究し続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昔に全部学んだ」という思いは、霊的な傲慢になり得ます。神様の言葉はどれほど学んでも尽きることがなく、私たちは常に御言葉の前に謙遜であるべきです。神様はいけにえよりも、神様を知ることを求めておられます。パウロもまた、キリストを知る知識が最も尊いと告白しました。御言葉を正しく理解しないまま全て理解していると思い込むと、誤った解釈や偽りを真理のように信じてしまう危険があります。だからこそ、私たちは生涯にわたり御言葉に親しみ、神様と主イエス・キリストをより深く知っていく者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

第三に、主の律法を遵行することを決心しました。御言葉は、知るだけで終わるのではなく、行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エズラは律法を研究しただけでなく、自らそれを実践することを決心しました。御言葉を学ぶ目的は、御言葉どおりに生きるためです。聖書は、御言葉を聞いて守る者が幸いであると語っています。ヤコブ書も、「御言葉を行う者となり、聞くだけで自分を欺いてはならない」と勧めています。真の従順とは、心と魂と力を尽くす全き従順であり、自分の好む言葉だけを選ぶのではなく、神様のすべての御言葉に従うことです。ヨシヤ王は神殿で律法の書が見つかったとき、衣を裂いて悔い改め、心と魂と力を尽くして神様に立ち返りました。ノアもまた、理解しがたい命令で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神様が命じられたとおりすべてを行いました。従順とは、楽な御言葉だけを選んで行うことではありません。難しく、負担に感じる御言葉であっても、神様が命じられたゆえに従うことが、真の信仰なのです。

最後にエズラは主の律法を教えることを決心しました。エズラの決心には、はっきりとした順序がありました。まず御言葉を研究し、自らそれを実践し、その後に他の人々へ教えました。知らないことは教えることができず、自分が行っていない御言葉を力強く伝えることもできません。神様の民は共同体です。１人だけが御言葉をよく守っているだけでは十分ではありません。御言葉を知る者が知らない者を教え、悟った者がまだ悟っていない者を助け、教会全体が共に成長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神様の御言葉は蓄えるためではなく、分かち合うためのものです。韓国教会も、福音を受けたことにとどまらず、宣教師を派遣し福音を伝えてきました。受けた恵みを分かち合うとき、神様はさらに大きな恵み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他の人を教える者も、教える過程でより深く学び、成長していきます。教会は与える教会、伝える教会、成長する教会と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受けたものを隣人と分かち合う教会。イエス・キリストの福音を宣べ伝える教会。御言葉と信仰の中で絶えず成長し続ける教会であるべきです。

(번역) 이와가타 집사

离开巴比伦，回到神的话语中
拉 7:1-10

以斯拉是祭司，也是文士，是带领以色列百姓从巴比伦回到耶路撒冷、且在灵命上推动改革的领袖。第二次被掳归回时，他率领约一千七百名壮丁以及妇女孩童，历时四个月，走了约一千四百公里的路程。当时以斯拉在波斯帝国享有崇高的地位与特权，若只为自己着想，根本没有理由踏上这条危险又艰苦的归途。然而他所看重的不是眼前的安逸，而是以色列民族的复兴与神的旨意。圣经记载：“因他 神施恩的手帮助他”（拉 7:9）。我们的生活与事奉也是如此，不是单凭人的能力就能成就，唯有 神施恩的手帮助，才能亨通。

第一，以斯拉定志归回信仰之地。以斯拉定志离开富庶的波斯，回到已成废墟的耶路撒冷。按世人的眼光，这是从大城下到小城，圣经却记载以斯拉是从巴比伦“上来”（拉 7:6）。因为渴慕 神的同在，前往圣殿所在之地的路，是凭信心上行的路。信心的抉择必然以祷告接续。要带领众人远行，需要王的准许与路上的平安；以斯拉必是相信王的心志也在 神掌控之中而去恳切祷告。摩西也曾舍弃法老女儿之子的身份，宁可和 神的百姓同甘共苦，看为基督受的凌辱比埃及的财物更宝贵（来 11:24-26）。凡凭信心舍弃的， 神必以更好的回报。不看眼前的利益，而仰望 神赏赐的人，才能作出信心的决断。

第二，以斯拉定志考究耶和华的律法。以斯拉是当时最卓越的律法学者，却仍定志更深考究神的话语。以色列百姓被掳的根本原因，不在于军力薄弱，而在于不明白 神的话、不肯顺从。不明白话语就无法顺从，不顺从就会远离 神的旨意。所以圣徒不能只停在读经，更要深入查经、学习。“从前都学过了”的想法，可能成为属灵的傲慢。 神的话语学无止境，我们在话语面前当常存谦卑。 神喜爱人认识 神，胜于燔祭（何 6:6）；保罗也以认识基督为至宝（腓 3:8）。若不真明白话语，却自以为全懂，就可能把错误的解释和谎言当作真理来信。因此我们一生都当亲近话语，渴慕认识 神和耶稣基督。

第三，以斯拉定志遵行耶和华的律法。话语不止于知道，更要遵行。以斯拉不但考究律法，更定志亲身遵行。学习话语的目的，是要照着话语而活。圣经说，听 神之道而遵守的人有福（路 11:28）；雅各书也劝勉说：“只是你们要行道，不要单单听道，自己欺哄自己。”（雅 1:22）真正的顺从，是尽心、尽性、尽力的全心顺从；不是挑自己喜欢的经文来行，而是遵行神一切的话。约西亚王在圣殿中发现律法书时，撕裂衣服悔改，尽心、尽性、尽力归向 神（王下 22:11；23:25）。挪亚虽领受难以理解的命令，仍照 神所吩咐的都行了（创 6:22）。顺从不是专挑轻松的话语来行；即使是艰难且沉重的话语，因为是 神所吩咐的就去遵行，这才是真正的信心。

第四，以斯拉定志将律法教导以色列人。以斯拉的决心有清楚的顺序：先考究话语，自己遵行，然后教导别人。不明白是无法教导，自己不遵行的话语也无法传讲。 神的百姓是一个群体，单单一个人谨守话语是不够的。明白的要教导不明白的，领悟的要帮助尚未领悟的，全教会要一同成长。 神的话语不是用来囤积，而是用来分享的。韩国教会也没有停在领受福音，而是差派宣教士、传扬福音。分享所领受的恩典时， 神就赐下更大的恩典；教导的人，自己也会学得更深、灵命增长更深。教会应当成为给予的教会、传扬的教会、成长的教会：与邻舍分享所领受的教会，传扬耶稣基督福音的教会，在话语与信心中不断成长的教会。

(번역) 김기호 집사

Leave Babylon and Go to the Place of the Word
Ezra 7:1-10

Ezra was a priest and a teacher of the Law, and a leader who led the people of Israel from Babylon to Jerusalem and brought about spiritual reform. During the second return from exile, he led about 1,700 men, along with women and children, on a journey of about 1,400 kilometers over four months. At that time, Ezra enjoyed a high position and privileges in the Persian Empire. If he had thought only of himself, there would have been no reason to embark on a dangerous and uncomfortable return journey. But he looked beyond his present stability to the restoration of the Israelite nation and the will of God. The Bible says he experienced "the good hand of his God upon him." Our lives and ministry also cannot succeed by human ability alone; they prosper only when God's good hand helps us.

First, Ezra resolved to return to the land of faith. Ezra resolved to leave prosperous Persia and return to ruined Jerusalem. From the world's perspective, it was a path from a great city down to a small city, but the Bible records that he **"came up"** to Jerusalem. This is because the path to the place where God dwells and where the temple is is a path of going up by faith. A resolution of faith must be followed by prayer. To lead many people on a long journey required the king's permission and safety. Ezra must have prayed, believing that the king's heart was also in God's hand. Moses also gave up his position as the son of Pharaoh's daughter and chose to suffer with God's people. He considered disgrace for the sake of Christ of greater value than the treasures of Egypt. God repays what we give up by faith with something better. Those who look to the reward God will give rather than immediate gain can make a decision of faith.

Second, Ezra resolved to study the Law of the Lord. Ezra was the greatest teacher of the Law of his time, yet he resolved to study God's Word even more. The fundamental reason Israel was taken into exile was not that their military power was weak, but that they did not know God's Word and disobeyed it. If we do not know the Word, we cannot obey it, and if we do not obey, we drift away from God's will. Therefore, believers must not stop at merely reading the Bible but must study and learn it deeply. Thinking, "I already learned all that long ago," can become spiritual pride. God's Word is endless no matter how much we learn, and we must always be humble before the Word. God desires the knowledge of God more than sacrifice. Paul also confessed that the knowledge of Christ is the most excellent. If we mistakenly think we know everything while not properly knowing the Word, we can believe wrong interpretations and lies as if they were truth. Therefore, we must stay close to the Word all our lives and come to know God and Jesus Christ more deeply.

Third, Ezra resolved to practice the Law of the Lord. The Word does not end with knowing; it must be done. Ezra resolved not only to study the Law but also to practice it himself. The purpose of learning the Word is to live according to it. The Bible says blessed are those who hear the Word and keep it. James also exhorts, **"Do not merely listen to the word, and so deceive yourselves. Do what it says."** True obedience is wholehearted obedience with all your heart, soul, and strength; it is not selecting only the words you like but following all of God's Word. When King Josiah discovered the Book of the Law in the temple, he tore his clothes and repented, and returned to God with all his heart, soul, and strength. Noah also obeyed all that God commanded, even though the command was hard to understand. Obedience is not picking out only comfortable words to obey. Even if a word is difficult and burdensome, following it because God commanded it is true faith.

Finally, Ezra resolved to teach the Law of the Lord. There is a clear order in Ezra's resolution. First, he studied the Word; then he practiced it himself; and afterward he taught others. You cannot teach what you do not know, nor can you powerfully convey a Word you do not practice. God's people are a community. It is not enough for one person to keep the Word well. Those who know the Word must teach those who do not, those who have understood must help those who have not yet understood, and the whole church must grow together. God's Word is not to be stored up but shared. The Korean church also did not stop at receiving the gospel but sent missionaries and proclaimed the gospel. When we share the grace we have received, God gives even greater grace. When we teach others, we ourselves learn more deeply and grow. The church must be a giving church, a proclaiming church, a growing church. A church that shares what it has received with its neighbors. A church that proclaims the gospel of Jesus Christ. A church that continues to grow in the Word and in faith.

(번역) 김은성(Kevin Jin) 목사